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 청년농업인 소통 간담회

영광=김동규 기자

2026년 03월 29일(일) 19:37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는 “최근 지역 청년 농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업인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들이 영농 초기 겪는 농지 확보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농지은행 사업의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영광지사는 올해 새롭게 개정된 2026년 농지은행 사업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안내했으며, 참석자들은 농지 임대 과정 등 현장에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고충을 나누며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올해 총 187억원 규모의 농지은행 사업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했으며, 맞춤형 농지 지원과 임대 수탁 사업 등을 통해 영광 지역 청년농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영광지사 관계자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소통을 한층 강화하고, 청년 농업인들이 지역 농업에 흔들림 없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www.kjdaily.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kjdaily.com/1774780664675780062>
프린트 시간 : 2026년 04월 16일 11:25:57